

어름꾼

뱃줄에 몸을 맡겨 허공을 움켜쥐고
공중에 가상의 무게를 잡아
천칭처럼 나풀거린다.
나비처럼 훨훨 날아갈 듯 활개를 치며
앞 만 보고 가는 앓은뱅이 전진
밑을 보지마라, 시선에게 당부하지만
눈은 눈치가 요요하다 결눈질로 아래를 훑는다.
공기의 부력으로 떠있는 듯 출렁거리는 녹밭줄
광대는 합죽선을 흔들며 허공잡이를 하고
어긋나기로 디딘 발은 아슬아슬
한 치의 오차에 등 돌린 추락
가야 할 길은 코앞, 줄 위에선 먼 길

검은 그림자 은밀한 부정의 손
팽팽한 삭도 아래 선택의 땀 주르륵
내면속의 갈등은 낙하하는 고뇌의 파편들
청탁의 바람은 흔들리는 소름으로 파고들고
군중 속 여론이 떠받든
저 외로운 줄타기.